진짜 교회V-유통구조

(눅9:49-56)

49.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짜 교회V - 유통구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교회도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유통구조를 통해서 유통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개신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교도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톨릭교도도 숫자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이슬람교도도 한국 내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교회 내의 유통구조가 잘 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유통구조를 알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 아주 성황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은 그냥 이 지상의 쇼핑몰, offline 상의 쇼핑몰과 비슷해요, 그 운영 구조가.
백화점이 쇼핑몰 아닙니까?
이처럼 백화점 안에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상점을 얻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가구점이 들어와 있고, 구두점이 들어와 있고, 화장품 파는 여러 회사들이 백화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입점이라 그래요.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물건을 파는 가게를 만들어 놓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터넷상에 백화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건을 만드는 각종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그 인터넷 쇼핑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물건을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탁을 산다.
그래서 어느 쇼핑몰에 들어가서 식탁을 치면,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는 가운데 물건들을 쭉~ 사진으로 확인을 하면서 보다가, 아! 어느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그 물건을 딱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생산자가 만드는 또 다른 식탁들이 소개가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를 위해서, 그 생산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책상은 크기가 얼마이며 뭐 색깔은 어떤 색깔이 있고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식탁의 자는 끼워서 파는지 안 파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그 생산자와 직접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쇼핑몰 회사에서는 직접거래 하는 걸 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몰마다 밑에 보면 주의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직접거래하신 뒤에 물건에 하자가 생길 때에, 그 물건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때 생산자 측에

서 그야말로 오리발을 내밀어도 우리 쇼핑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쇼핑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쇼핑몰이 있고, 각종 생산자들이 쇼핑몰에 입점을 하고, 그 쇼핑몰 안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쇼핑몰의 생산자들은 쇼핑몰 측에 커미션을 주는 거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물건을 소개해 주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모아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쇼핑몰을 통해서 사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물건을 팔 때마다 쇼핑몰에 얼마씩, 물건 하나당 얼마씩을 커미션으로 넘겨 줄 것입니다.

이런 유통구조가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의 머리속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얘기에요 2000년 전에.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유통시키는 단체입니다.
그 최초의 형태가 12제자와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으로 쫓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로 이루어진 이 그룹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 요한뿐이었겠습니까? 요한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말라, 네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라면서 그에게 핀잔을 주고, 마치 쇼핑몰에서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대체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 12제자 그룹, 우리 그룹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그룹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직접 우리를 통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고 금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유통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제품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올리는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쇼핑몰과 같은 12제자 그룹을 거쳐야만 된다고 12제자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파는 쇼핑몰을 차려놓았다면, 쇼핑몰이 하는 일은 내 이름을 소비자들이 알게 해서, 내 이름을 그들이 직접 갖고, 그러니까 나와 직접 거래 하도록 주선하는 자들이지, 너희를 거쳐야만 내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 안에서 교회가 유통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교회가 조직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교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인 사이에서 그 교인으로 하여금 먼저 조직에 순응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직원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조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조직을 위한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고, 조직원이 되도록 그래서 이 조직원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한 사람이 교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과 예수님이 직접 둘이 만나도록 돕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교인에게 요구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당회가 있고, 제직회가 있고, 분과가 있고,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교육이 있고, 훈련과정이 있고, 새 신자 과정이 있습니다.
새 신자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에 구역장 권찰 교육을 받고, 그래야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구역장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권찰이 돼서 일하고, 당회원으로 일하고, 제직회원으로 일하고, 제직회 부서의 뭐 부장님으로 차장님으로 일하고…
전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내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면 되는 것을, 그 예수님과 이 사람이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커미션을 교회 안에 조직화 되어 있는 그 조직 속에서, 조직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금해진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12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조직과 그룹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특허를 낸 것처럼 독점하라고 12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12명 모두가 다 각자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최초의 모습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그 의도대로 교회가 형성이 되려면 말씀 드린 대로 마치 바퀴 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마차 바퀴살이 20개건 30개건 40개건, 절대로 바퀴살끼리 붙어서는 안 됩니다.
바퀴살들은 다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각자 모두가 다 축에 붙어야 됩니다, 가운데 축에.
바퀴살이 100개라도 100개 모두가 다 서로 붙으면 안 되고, 서로 붙어 가지고 12명이 서로 붙어 가지고 한 그룹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 떨어져 있는 채 오직 바퀴 축을 향하여 붙어있어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퀴 축에 목사님도 붙어있고, 장로님도 붙어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새 신자도 다~ 각자가 바퀴 축에 붙어 있을 때, 교회라는 바퀴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굴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당회 제직회 행사 뭐 훈련과정 이런 것이 아니라, 10명이면 10명,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부터 말단 새 신자까지, 말단이라는 말도 조직을 연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방금 들어온 새 신자까지 모두가 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퀴 축에 연결된 바퀴살 같이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룬, 요 팀들이 1000면 1000개, 10000면 10000개 산재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면 되는 것이고,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 잡힌 모습으로 교회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조직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님을 선정하고 조직화 되려 그럴 때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도, 조직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으로는, 철저하게 사도들이 했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사도보다 더 사도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도대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왜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라고 하지 않고,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십자가서부터 승천까지를 하나의 길로 제시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인이란 누구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열어놓게 될 이 길을 걷는 사람이 교인인 것이다.'
12제자 그룹을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금했다 이겁니다.
'우리' 12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제자그룹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교인됨을 금한 건데,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승천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교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유통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승천하신 주님까지 같이 따라가, 그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통과하는 것을 막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통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이방 땅을 밟으면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하려 하시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이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점잖게 쓴 거죠, 점잖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의 일행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속에서 치미는 분노와 혐오감이 아주 머리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너~무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저들에 대한 증오가 부글부글 타 올라가지고, 지금 당장 불벼락이 내려서 저들의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저들이 이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결국, 이렇게 불을 내리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가 흩어진 뒤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유통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혐오감과 분노가 끓어서 지금 당장 날 벼락을 맞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동 성폭행범들, 가정 파괴범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일본을 향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온갖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행동을 하는 그 일본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콱 때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러한 극한의 분노와 혐오가 생기는 대상들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주님과 한 팀이 되도록 부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원인 나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혐오스럽고, 지금 당장 날 벼락을 맞아서 즉사 했으면 좋을 것처럼 미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유통시켜야 되는 운명을 타고 난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과 그 한 사람이 만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조직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커미션으로 뽑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직접거래를 하도록 돕는 것 이외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제시하는 유통의 대상은, 지금 즉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되어질 만큼, 내 마음에 혐오감이 생기는 것조차도 교회는 이 주님과 한 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일본이 결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회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 교회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교회가 유통 시켜야 될 예수님의 이름을 민족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두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일본이 독도를 고집해서, 당장 날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일지라도, 그 망언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지도록 유통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은 내게 더욱더 왕성하게 이 세상에 유통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가 조직으로 바뀌면서, 예수님과 한 사람 부름 받은 자가, 한 팀이 되는 일에 끼어들어, 끊임없이 그의 예수님을 향해 쏟아 부어져야 될 에너지를 빼앗고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바른 영적 유통구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